

# 다시, 꿈

김중엽(본과 4년)

## 필라델피아에서의 단상들

제가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relman School of Medicine Clerkship Program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뛰어난 어린이병원 중 하나인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에서 실습을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라는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 속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Covenant House와 협력하여 진료를 보는 청소년 의학 실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lerkship 배정 시스템 특성 상 아래 순위에 있었던 Diabetes and Endocrinology program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Penn의 또 다른 affiliated hospital인 Pennsylvania Hospital에서 한 달간 실습을 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미국 의대 실습과 병원 생활이 어떤지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그림의 목표였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을 품고 필라델피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 날, 미국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힘입어 저는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하얀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넥타이도 맵습니다. 그런데 간밤부터 내리던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Philadelphia 공용 자전거인 Indego Bike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온몸이 땀과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미리 공지 받은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Endocrinology department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니, 몇 블록 떨어진 Washington Square라는 외래 전용 건물로 2년 전에 옮겨 갔다고 하였습니다. 허탈해진 마음을 추스르고는, 다시 부슬비를 뚫고 늦지 않기 위해 뛰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 듣게 된 것은, 제 교육을 주관하시는 attending chief께서 그날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없이, 약간은 실망감을 안고 시작된 실습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경험은 첫날의 인상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환자를 한 시간에 2-3명 정도씩 보는 진료 환경이 놀라웠고, 저에게도 매우 교육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어로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직접 해본 경험이 적었

던 저로서는, attending 선생님들이 주소(chief complaint)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환자에게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질환에 대해 박학다식 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성 질환자가 많은 당뇨 및 내분비분과의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HbA1c, Lantus와 Humalog, sliding scale 등 의대생도 잘 모를법한 의학용어와 약의 이름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저의 교육을 위해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이 자기 질환에 대해 정통해질 수 있는 이유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때까지 교육을 철저히 한 것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치니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똑똑하면 더 똑똑했지, 지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환자들도 이렇게 정통해질 수 있을 텐데, 환자와 의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에다 쫓기는 한국의 진료환경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생겨나는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정보들을 찾고 때로는 맹신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주부터 진료실에서 attending 선생님보다 먼저 들어가 환자들의 병력을 청취와 신체 검진을 한 뒤 attending 선생님께 저만의 임상 판단과 진단/치료 계획을 발표하고 attending 선생님과 다시 들어가 진료를 마무리 하는 형태로 함께 진료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한국인보다 미국인 환자를 더 많이 본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저만의 임상 판단과 진단/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진단 기준이라던가 일차 선택 약(drug of choice)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도, 약을 어떻게 처방하고, 그 약을 언제 얼마나 먹거나 맞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잘 알고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험은 많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갑상선호르몬인 L-Thyroxine의 경우 체중 당 1.7mg을 하루 1회 복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이나 커피 등의 음료와 함께 복용할 경우 흡수가 저해되기 때문에 이들과 30분 정도 떨어뜨려 먹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Proton-pump inhibitor와 같은 약이나 철, 아연 같은 무기물 역시 흡수를 방해하므로 4시간 이상 떨어뜨려 따로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못 지켜서 갑상선저하증이 지속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당뇨 및 내분비 분과의 특성 상 환자들의

순응도(compliance)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큼 이와 같이 꼼꼼한 복약 지도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았거나, 환자가 동의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실습을 돌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느낀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으로서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들어와 있다는 당당함 보다는,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들어와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혹시나 학생이라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들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절대로 의대생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료실이든, 병동이든 상관없이 제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attending 선생님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모두가 대학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수련병원에 왔으니 의대생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부당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미국에서처럼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동의를 해주는 환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같이 환자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분과에서의 실습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물음들 앞에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의 실습 동안 환자들은 100% 동의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대생들을 단순히 학생으로만 보기보다, 치료팀의 일원으로 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과 Sub-internship의 경우에는 실제 주치의처럼 검사부터 치료까지 환자 입원 기간 모든 오더를 레지던트와 함께 작성하고, 당직을 서기도 하는 등 미국 의대생들의 생활은 한국 의대생들에 비해 훨씬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도 의대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지켜줄 수 있는 병원 환경이 되려면, 의대생들이 환자를 좀더 주도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놀라웠던 점은,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Pennsylvania hospital에서는 각자 집에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나, take out해서 가져 온 음식을 시간될 때 짬짬이 먹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진료 사이 비는 시간에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점심시간처럼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 병원식당이나 근처 대학로에 있는 식당으로 삼삼오오 몰려갔다가, 돌아올 때 커피 한 잔 take out해서 오는 사람들의 풍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라면 보통 직원들의 출근을 앞당기거나 퇴근을 미루는 사유가 되는 각종 회의나 컨퍼런스들도 점심 때 열리고,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아끼는 만큼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야근이 일상화되어 오히려 일과시간에 일을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일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 역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선택과 집중

미국에서의 선택실습(Elective course)은 "선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학교로 가야 할까? 어떤 분과를 돌아야 할까? 집은 어느 쪽으로 구해야 할까? 등등 사실 미국으로 선택실습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Pennsylvania Hospital에 배정 받게 된 것을 통보 받은 뒤 Craigslist라는 웹사이트에서 병원이 위치한 Philadelphia Center City 쪽 sublet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2-3주간 하루에 이메일을 5-6통씩 보냈음에도 번번히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away rotation을 많이 하는 미국 의대생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rotating rooms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통해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고, 무엇보다 값이 매우 저렴한 sublet을 하나 찾을 수 있었고,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해보니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털이 문제였습니다. 한 친구의 말처럼 정전기로 잠깐 붙여놓은 것 같은 그들의 털이 하루에도 한 숨 뭉치씩 빠지다 보니, 아무리 제 방 문을 닫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털이 부유하지 않는 청정 공기를 마시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 강아지를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도 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도착 첫날 자려고 하는데 천식이 다시 도진 것처럼 숨쉬기가 곤란해지다 보니, 단순히 값싼 곳에 계약한 제 선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고,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무한에 가까운 기회와 무한에 가까운 정보들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본과 4년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해외 선택 실습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알아보고 올걸, 좀 더 준비해서 올걸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강박관념이라는 것을 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길을 가지 않은 것에 불평하며 우울하게 있기 보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잘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최상급과 고효율, 빠른 성공만 추구하는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조금 더디더라도 내 페이스 대로, 만족하며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 제 몸은 고양이 털들에 적응하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지역만의 다양한 문화들과 상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 미래에 대하여

‘꿈이 뭐야?’라는 질문이 ‘어느 과에 가고 싶어?’로 바뀐 요즘, 다시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저로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4-5살이 많아 형, 오빠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선택실습을 하고, 동부에서 열린 유서 깊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 참석하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더 고민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실제로 저희보다 몇 십 년 전에 걸어간 선배님들을 보니,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함께 미국으로 선택실습을 온 친구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 수련의 장단점을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수련은 1) 교육적 측면이 우수하고, 2) 연구를 하고 싶을 경우 환경이 좋으며, 3) 삶의 질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비교해 1)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2)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수련 받을 확률이 떨어지며, 3) 소수인종이자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장점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단점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내 가족만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좋은 멘토, 좋은 동료, 좋은 사람을 만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